

社說

늘 밝은 마음으로 살자

동광혜두(東光慧頭, 1900~1976) 선사가 성도절 법문을 하려고 법상에 올랐다. 선사는 주장자를 치고 대중을 향해 “부처님은 어느 별을 보고 성불하였는가?”하고 물었다. 대중이 말이 없자 “누가 나에게 물어라” 했다. 대중 가운데 한 스님이 “부처님은 어느 별을 보고 성불하였습니까?” 하고 여쭙었다. 선사는 잠시 침묵을 하고 대답했다. “지금 내게 묻는 바로 이 별을 보고 성불하셨다.”

지난 22일은 성도절이었다.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철야용 명정진을 하며 부처님처럼 성불 할 것을 발원했다. 부처님은 만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중생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부처이고 깨달음의 별인데 오락야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음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월등불(日月燈佛)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서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두운 중생계의 그림자로 물려 지내는 것이다.

마음을 밝히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마음을 밝히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마음이 밝아진다. 깨달음은 많은 학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순간이라도 마음이 밝으면 그 순간이 정각의 순간이고 성불의 순간이다. 그 순간이 모이고 모여 부처가 되는 것이다. 성도절의 그 정진과 발원이 때 순간 마음을 밝히는 별로 빛날 때 우리 모두가 성불한 존재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논산훈련소 법당 한시가 급하다

군포교에 대한 조계종의 의지가 다시 한 번 결집됐다. 군종교구의 임원들과 국군불교총신도회 소속 장성들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신년하례를 하는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에 중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병들의 수계가 신행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교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중에서도 훈련소에서의 포교활동은 군포교의 최일선이다. 사회에서 막연하게 불자라는 의식을 가졌던 장애인이나 무종교이지만 불교를 좋아하는 정도의 장애인들을 확실한 불자로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병훈련소에서 불교를 ‘선택’한 장애병은 자대에 가서도 자연스럽게 법당에 나갈 수 있다.

현재 조계종은 논산훈련소에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법당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다. 이미 실무자들도 다른 종교의 시설들을 답사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종교의 거대한 시설에 비추어 보면 대형 법당 건립불사는 한 시가 급한 일임을 실감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지금 이 순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 가고 있고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활동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종교구의 치밀한 사업 진행 그리고 국군불교총신도회 등 불교계 단체들의 동참이 어우러진다면 법당 건립이 그리 어려운 불사는 아닐 것이다. 올 해는 논산훈련소 법당 건립에 조계종의 원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길 기원한다.

언론은 연일 중남미 카리브해의 작은 소국 아이티의 강진 피해 현장을 보도 한다. 길거리에서 파는 진흙과자로 알려진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지난 12일부터 비극의 땅이 되었다. 흰 천만 쉼 채 뒷골목에 안치된 시신과 파괴된 건물의 잔해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어린이의 사진이 눈물겹다. 20여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참상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건물 잔해 속에는 아직도 수 만 명이 깔려 있다. 우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팀이 희생자가 많은 매몰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지만 워낙 무너진 건물이 많아 역부족이다.

굶주린 난민들의 구호품을 갖기 위한 몸부림은 폭동으로 이어져 약탈자가 경찰의 총을 맞는 사건도 발생했다. 구조물자 공급이 지연되면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친 난민들이 동요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너진 건물과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식량난 속에 치솟는 생필품 가격도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보다 앞선 지진의 역사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재앙 그 자체이다.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까지도 송두리째 뒤바뀌 놓기도 하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런 지진의 공포가 지구촌을 휘감고 있다. 지금도 아이티에 이어 미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서도 강진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지진의 참상에 대비하자

나,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서도 강진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한반도는 과연 지진의 안전지대일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 인도네시아, 페루 등이 속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접해있는 유라시아판이다. 이 지진대는 세계 지진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1999~2008년)간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는

평균 41회나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6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 관측 이후인 31년 만에 가장 지진이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지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978년 홍성 대지진만 해도 건물 파손이 무려 118동에 이르렀다.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지진 대응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남서쪽에서 7.0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5만 여명이 사망하고 62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었다. 우리도 이제 아이티 지진 참사를 교훈으로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교육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일반 건축물에도 내진설계 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지구에 대해 참 무심한 편이다. 자연과 환경이 좀 파괴되어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데만 관심이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작금의 폐해로 드러난다. 하나하나의 사물은 우주의 섭리와 무관할 것 같지만 삼라만상에 근본이 존재한다. <법화경(法華經)> ‘방편품(方便品)’에서 말하는 십여시(十如是)는 세상의 근원을 잘 설명한다. 그 중에서 상(相)은 모양을 뜻한다. 태고 적부터 이루어져 억만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세상이 우주이고 그 여여한 우주의 참 모습을 실상(實相)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러한 우주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 왔다. 그러한 우주의 참 모습을 법신(法身)이라 부르거나 불이라고 하며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인 썸이다. 삶은 오늘도 십여시의 조화 속에서 순리대로 움직인다. 이번 아이티 참사도 우리가 개발보다는 자연을 소중히 하며 순리에 역행하지 말고 물 흐르듯 살아야 하는 가르침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나’보다 ‘우리’ 먼저 생각하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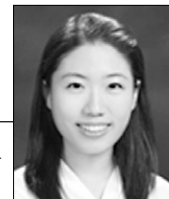
이로운 순간, 동서남북 사방에서 같은 해를 보고 있는 몇 천만 명의 눈빛은 건강 재물 명예 권력 등 각기 다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지 않던가!

나 역시 법인(凡人)으로서 해가 바뀔 때마다 일신(一身)의 안위(安慰)를 우선으로 하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기도를 해왔고, 개개인이 각자 행복하 다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얼마 전 있었던 아이티 지진 대참사 속에서 자신을 지켜 줄 부모를 잃고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대신해서 행복을 기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렇듯 모르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 볼 수도 없지만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행복을 빌어 준다면 행여 훗날 나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이름 모를 누군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과정 속에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시작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리라.

지나간 어느 해의 첫 날,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오늘날 세계는 너무도 골 깊은 갈등과 고통에 빠져 있으므로, 누구나 평화와 행복을 갈망한다. 한데 불행하게도 그 갈망은 사람들을 덧없는 쾌락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은 더 깊이 생각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나는 믿는다. 물질적인 발전이 계속되어도, 진실에의 추구는 꾸준히 진행될 것이며 훨씬 더 커지리라”라고. (달라이 라마,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4)

디지털 통신 기술과 함께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우리의 정신적 거리는 서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자.



남승희 SKT Data사업본부 전략컨텐츠개발팀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odern Buddhism, including phone numbers for editorial,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odern Buddhism, including phone numbers for regional offices.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정토선원 창종공고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불조의 해명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선택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불교는 중생교화와 정법안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정대법사께서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시고 정토선수기를 받아 오셨습니다. 쉽고 빠르게 윤회로부터 벗어나 깨달을 수 있는 정토선수행을 모르고 미혹에 끄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혹에서 벗어나려 뜻을 모아 정토선수행법으로 무명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지침의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토선 수행으로 석존께서 영겁기단이 되고 이땅에 번영과 불일이 빛나길 바라는 일념으로 대한불교정토선원을 창종하셨습니다. 이 결사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새로운 세계를 엮시다.

대한불교정토선원 총무원장 등정

창종위원 : 일각 법경 흥전 법산 보해 법철 법현 광영 해산 등정 무상 대명 해산

■ 창종일시 : 2010년 1월 31일 사시

■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73-1 대한불교정토선원 총본산 오두산 서방사 / TEL 055)673-3719



정토선(淨土禪)은 나무아미타불을 일심염불하여 선과 정을 동시에 닦는 자성염불의 수행으로 무념의 경계에 이르도록 수련하여 명심견성하는 선(禪)입니다.